



## 동화 부문

## 졸보 훈련일기

## 윤소정

〈훈련일기 시작〉

목표: 졸보를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닭으로!

이유: 할아버지 생일에 잡힐 위기.

장소: 귀신의 집

남은 시간 : 7일

졸보가 우리 집에 온 건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노란 솜뭉치 같은 졸보는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어디를 가도 따라왔고, 내가 안 보이면 슬프게 울었다. 부리로 톡톡 건드리며 장난을 치거나 내 다리 위에 앉아 TV를 보기도 했다.

졸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컸다. 이제는 진짜 닭처럼 보였다. 새벽이면 어둠을 뚫고 울음이 터져 나왔다. 꼬까……꼬이! 어느 날은 옆집 아주마가 시끄럽다고 투덜댔다.

“더 크기 전에 잡는 게 낫지 않아요?”

나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제 무슨 말이나며 졸보는 우리 가족이라고 말해줄 줄 알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는데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 생일 때 삼계탕을 할까 봐요. 여름이니까 뽕보신도 할 겸.”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어떻게든 졸보를 구해야 해.’

며칠 전 TV에서 봤던 신기한 동물들이 떠올랐다. 코로 붓을 잡고 그림 그리는 꼬끼리, 노래 부르는 원숭이, 두 발로 걷는 고양이.

‘졸보도 유명해지면 편찮을 거야.’

먼저 연습할 장소가 필요했다. 동네 아이들이 귀신의 집이라고 부르는 곳이 딱이었다. 뒷산이라 졸보가 울어도 아무도 모를 거다.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다. 졸보를 품에 안고 삼금삼금 집을 나섰다.

해가 쨍쨍한데도 산속은 으스스했다. 무서웠지만 포기할 순 없었다.

‘왜 안 오는 거야.’

시우와 귀신의 집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시우는 보이지 않았다. 혼자 갈 생각을 하니 속이 울렁거렸다. 심장 소리가 쿵쿵 귀에 울렸다.

헉헉 숨을 몰아쉬며 시우가 달려왔다.

“왜 이렇게 늦었어.”

“엄마 몰래 나오느라.”

“야, 너무터 들어가.”

팔꿈치로 시우를 톡 쳤다.

시우는 침을 꿀꺽 삼키고 넓은 대문을 밀었다. 끼이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렸다.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지는 소리. 곱슬머리가 쭉 펴지는 느낌이다.

졸보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따뜻한 체온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었다.

그때였다. 어깨 위로 차가운 손이 스르르 올라왔다.

“으아아아, 귀신이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졸보가 품에서 빠져

나와 뒤뚱뒤뚱 걸어갔다.

“하하, 강태산. 이 겁쟁이! 귀신이 어딤어.”

숙한 목소리였다. 고개를 들자, 나온이가 배를 잡고 웃고 있었다.

“너희 여기서 뭐 해?”

시우가 턱으로 졸보를 가리켰다.

“애 훈련.”

졸보는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내 품으로 품짝 뛰어들었다. 나온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강아지도 아니고 닭을 훈련해?”

시우와 함께 준비해 온 점들을 꺼냈다. 나온이의 입이 ‘와’하고 벌어졌다.

“뭘까 이렇게 많아?”

“졸보가 뭘 잘할지 모르잖아. 다 해보려고.”

내 말을 듣고 나온이가 실실 웃었다.

“근데 졸보? 닭 이름이 졸보야? 너랑 똑같은데?”

입을 꼭 다물었다. 이런 실수를 하더니. 겁이 많고, 하도 나를 졸졸 쫓아다녀서 지어준 이름인데 하필 나온이에게 들켰다. 이제 온 동네 애들한테 소문날 게 뻔했다. 벌써 ‘졸보, 졸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중요한 일이 따로 있었다. 색종이를 펼쳐 바닥에 늘어놓았다.

시우가 물었다.

“색종이 고르는 것부터 할 거야?”

“응. 졸보가 좋아하는 색이 있을 수도 있잖아.”

나는 졸보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떤 색이 마음에 들어?”

졸보는 답 대신 산뜻한 공기 속으로 뛰어 들었다. 마당을 아리저리 뛰어다니며 우리를 놀리듯 휘회피해 다녔다.

“자, 형아 따라 해봐.”

무릎 꿇고 바닥을 짚은 채 일으로 색종이를 물어 흔들며 보였다. 졸보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럼 장애를 달리기부터 할까?”

수수강을 차례로 놓았다.

“이걸 뛰어넘는 거야. 알았지?”

졸보는 수수강을 넘어 성큼성큼 걸었다. 내가 횡단보도 흰색은 건너뛰고 검은색만 밟는 것처럼.

“울지, 잘한…….”

말을 끝내기도 전에 졸보가 수수강을 톡 건어쳤다.

“안 돼, 졸보.”

모이를 주며 어르려 했지만 졸보는 이미 줄을 따내고 있었다. 꾸벅꾸벅 졸다가 기우뚱하더니 결국 내 다리를 베고 누워 버렸다.

“어휴, 오늘은 그만하자.”

나도 그대로 드러눕었다. 기대하던 첫날치고는 좀 엉망이었다.

〈훈련일기 1일째〉

시간이 없는데…… 내일은 잘할 수 있겠지? 졸보와 연습한 지 벌써 다섯째 날이었다. 졸보는 빨간 색종이를 가장 좋아했고 가끔은 노란색에 관심을 보였다. 몇 번만 더 하면 무조건 빨간색을 고를 것 같았다. 수수강을 뛰어넘는 것도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아직 완벽하진 않았다.

이번엔 플라스틱 컵을 양쪽으로 길게 늘어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새로운 훈련을 시도했다. 졸보는 고개를 가웃거리더니 컵을 뺨뺨 차며 뛰어다녔다.

“너 정말 형아 말 안 들을래?”

졸보가 알미우면서도 걱정스러웠다.

내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시우가 말했다.

“유투브에서 춤추는 영부새를 봤거든. 닭도 새잖아. 그게 더 쉬울지도?”

좋은 생각이었다. 졸보는 고개를 까딱까딱 잘 흔들다가 조금만 훈련하면 춤추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다. 음악을 틀어주면 훨씬 잘할 수도 있다.

졸보의 날개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렇게 퍼덕거리려 봐.”

나온이가 톡 쏘듯 말했다.

“그거 동물 학대 아니야?”

“뒤편, 뒤편?”

그 사이에 졸보는 내 손에서 벗어나 저만치 달아났다.

“봐, 하기 싫어하는데 내가 억지로 시키는 거잖아.”

‘알지도 못하면서.’

가 났는데 이상하게 ‘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입술만 땀적거리고 있을 때 시우가 대신 나섰다.

“넌 왜 와서 시비야? 이견 졸보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

나온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걸 거면 차라리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

그냥 부탁하면 되지.”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다. 그래도 안 된다 고 하면? 그 순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화가 김영화 삽화

꼭 막혀 왔다. 차라리 졸보를 멀리 풀어줘야 하나 고민도 했다. 하지만 졸보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날 찾아 올지도 모른다.

꼬끼끼.

소와 조금 다른 소리였다. 뒤돌아보니 졸보가 가시덤불 사이에 갇혀 버둥거리고 있었다.

“음직이지 마. 그러다 다쳐.”

졸보를 달려며 천천히 손을 뻗었다. 다리에 굳힌 자국이 선명했고, 따가운지 자꾸 몸을 움찔거렸다.

〈훈련일기 5일째〉

졸보가 다쳤다. 정말 내가 괴롭히는 걸까?

나온이 말이 맞다. 겁쟁이는 졸보가 아니라 나였다. 이튿날 시우가 우리 집으로 왔다.

“졸보는 괜찮아? 훈련하려 안 가?”

어제 발라준 약이 잘 맞았나 보다. 졸보는 다시 팔짝팔짝 뛰어다녔다. 다행이었지만 마음 한쪽은 조금애했다. 당장 내일이 할아버지 생신인데, 졸보

를 계속 훈련시켜야 할지 그만두어야 할지 망설임이 커졌다.

‘이젠 정말 이 방법밖에 없어.’

가족사진을 졸보에게 들이밀었다.

“잘 봐, 할아버지, 할머니가 널 잡으러 오면 무조건 도망가야 해.”

졸보는 내 말보다 팔랑거리며 날아오른 나비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간신히 사진을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바닥에서 꿈틀대는 지렁이를 쫓아냈다.

“시우야, 졸보 오늘 너희 집 닭장에 두면 안 돼?”

어딘가에 숨겨야 했다. 내가 깨기도 전에 할머니 손에 잡히면 끝이니까.

혹시라도 누가 볼까 봐 두 팔로 졸보를 감싸안고 시우네 집으로 갔다. 닭이 이렇게 많으니 졸보 하나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다. 조심

조심 닭장 문을 열려는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옆집 아주마였다.

“너희들, 거기서 뭐 하니?”

꼬……꼬끼.

“지금 올면 안 돼.”

재빨리 졸보의 부리를 막고 시우에게 속삭였다.

“야, 뛰어.”

가 났는데 이상하게 ‘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입술만 땀적거리고 있을 때 시우가 대신 나섰다.

“넌 왜 와서 시비야? 이견 졸보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

나온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걸 거면 차라리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

그냥 부탁하면 되지.”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다. 그래도 안 된다 고 하면? 그 순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꼭 막혀 왔다. 차라리 졸보를 멀리 풀어줘야 하나 고민도 했다. 하지만 졸보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날 찾아 올지도 모른다.

꼬끼끼.

소와 조금 다른 소리였다. 뒤돌아보니 졸보가 가시덤불 사이에 갇혀 버둥거리고 있었다.

“음직이지 마. 그러다 다쳐.”

졸보를 달려며 천천히 손을 뻗었다. 다리에 굳힌 자국이 선명했고, 따가운지 자꾸 몸을 움찔거렸다.

〈훈련일기 5일째〉

졸보가 다쳤다. 정말 내가 괴롭히는 걸까?

나온이 말이 맞다. 겁쟁이는 졸보가 아니라 나였다.

이튿날 시우가 우리 집으로 왔다.

“졸보는 괜찮아? 훈련하려 안 가?”

어제 발라준 약이 잘 맞았나 보다. 졸보는 다시 팔짝팔짝 뛰어다녔다.

다행이었지만 마음 한쪽은 조금애했다. 당장 내일이 할아버지 생신인데, 졸보

를 계속 훈련시켜야 할지 그만두어야 할지 망설임이 커졌다.

‘이젠 정말 이 방법밖에 없어.’

가족사진을 졸보에게 들이밀었다.

“잘 봐, 할아버지, 할머니가 널 잡으러 오면 무조건 도망가야 해.”

졸보는 내 말보다 팔랑거리며 날아오른 나비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이번에는 바닥에서 꿈틀대는 지렁이를 쫓아냈다.

“시우야, 졸보 오늘 너희 집 닭장에 두면 안 돼?”

어딘가에 숨겨야 했다. 내가 깨기도 전에 할머니 손에 잡히면 끝이니까.

혹시라도 누가 볼까 봐 두 팔로 졸보를 감싸안고 시우네 집으로 갔다.

닭이 이렇게 많으니 졸보 하나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다.

조심조심 닭장 문을 열려는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옆집 아주마였다.

“너희들, 거기서 뭐 하니?”

꼬……꼬끼.

“지금 올면 안 돼.”

재빨리 졸보의 부리를 막고 시우에게 속삭였다.

“야, 뛰어.”

갔다. 졸보한테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닭이 없어요! 어쩔지 새벽에 조용하다 했더니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어허, 요즘 제법 잘 날아다니다 싶더니만.”

“혹시 밤에 너구리나 고양이까 잡아간 건 아니겠죠?”

숨이 턱 막혔다. 산짐승들이 졸보를 해칠지도 모른다.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귀신의 집으로 달려갔다.

졸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다. 눈을 꼭 감은 채 살며시 방문을 열었다.

다. 졸보가 나에게 달려와 주길 바랐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겨우 실눈을 뜨고 봤다. 어디에도 없었다.

‘외로워서 마을로 내려왔을지도 몰라.’

은 동네 닭장을 뒤지고 또 뒤졌다. 그렇게 한참을 찾아 헤매다 집으로 돌아왔다.

꼬끼오!

우렁찬 졸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가 걸걸 웃으며 말했다.

“이 녀석이 마을을 넘어갔던 모양이야. 문 앞에 서 있지 뭐냐.”

‘이 바보, 할아버지를 보면 도망치려고 했잖아.’

팔을 활짝 벌리자 졸보가 날개를 펼치고 뛰어올랐다.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눈이 따끔거렸다.

다. 졸보가 살포시 내 어깨에 기댔다.

퍼뜩 오늘이 할아버지 생신이란 게 생각났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려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졸보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세요.”

색종이를 마당에 흩뿌렸다.

“빨간 색종이 골라봐. 빨간색.”

졸보는 색종이 위를 통통대며 뛰어다녔다.

“아니, 이견 수수강이 아니잖아.”

허둥지둥 수수강을 늘어놓았다.

“이 위로 뛰는 거야.”

졸보는 수수강을 뚫고 장난스럽게 머리를 까딱였다.

“다 잊어버린 거야? 왜 하나도 못 해?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아무리 재촉해도 졸보는 귀찮은지 자기 집으로 속 들어가 버렸다.

할아버지는 할곳 나를 쳐다보더니 졸보에게 걸어갔다.

“안돼, 할아버지. 가지 마. 졸보 먹지 말고.”

할아버지 바지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졸보랑 헤어지기 싫다고요.”

할아버지는 나를 번쩍 일으켜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다.

“우리 태산이가 졸보한테 정이 많이 들었구나.”

어느새 나는 졸보도 툭툭툭툭하게 눈을 빛내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봤다.

“졸보랑 계속 같이 살아도 되는 거죠?”

할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다. 졸보의 머리도 톡톡 두드려주었다.

나는 졸보를 꼭 껴안았다. 졸보가 답답해서 끄끙거렸지만 더 꼭 끌어안았다.

살랑 바람이 땀에 젖은 머리를 식혀 주었다. 마당 위로 나무 그늘이 길게 드리웠다.

졸보야, TV 스타가 아니어도 돼. 그냥 너라서 좋아.

훈련 끝.

## “아이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며 묵묵히 써 나갈 터”

## 당선소감

당선 소식을 듣는 순간, 외할머니 덕의 풍경이 그려졌습니다. 동화 속 주인공인 병아리가 살던 곳이었죠. 안방 깊숙한 곳의 다락방, 분채와 떨어져 있던 창고, 그 안에 먼지가 쌓여있던 동화책, 외할아버지가 그 책들이 엄마가 어렸을 때 읽던 것이라며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 어린 엄마의 손때가 묻어 있는 동화책은 정말 보물 같았어요. 누렇게 빛바랜 종이에 담긴 이야기들이 어찌나 정겹게 느껴졌는지요.

한때는 전공 서적이 아닌 책을 읽는 것이 사치라 여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흑백의 활자로만 떠돌던 지



윤소정

할머니 덕 창고처럼 신비로운 공간으로 다가왔습니다.

동화를 쓰는 2년은 자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이내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발전이 없을까? 반짝이는 이야기를 쓰기에 나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글을 향한 마음이, 애정이 아닌 집착인가 싶어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저녁, 예기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서관 동아리에서 문우들과 신춘문에 당선작을 읽던 중이었죠. 당연히 차를 빼달라는 연락이라 생각했습니다. 평소 모르는 번호는 무시하던 제가 그날 따라 서둘러 전화를 받은 이유였어요. 수많은 당선 소감에서 보았던 그 믿기지 않는 순간은 그렇게 제게 찾아왔습니다.

동이트기 전 새벽하늘이 가장 어둡다는 말을 되뇌며 견뎌온 한 해였습니다. 그 끝에 받은 이 기쁜 소식이 한편으로 믿기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달콤한 격려이자, 더 치열하게 쓰라는 엄중한 채찍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 글을 나누고 결에서 힘이 되어준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멈추지 않고,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묵묵히 써 내려가겠습니다.

## 관념의 훈육 넘어 맑은 눈동자, 어린이다움 그리다

## 심사평

올해 신춘문에 동화 부문은 그 어느 해보다 풍성했다. 240여 편에 달하는 응모작은 동심의 화백을 꿈꾸는 예비 작가들의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었다. 특히 전설과 민담의 변용, 역사적 모티브를 활용한 작품이 많았던 점은 K-컬처의 도약이 아동문학의 뿌리를 얼마나 깊고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가능하게 했다. 아이들의 소소한 일상부터 노인 문제, 인공지능(AI) 탐론까지 소재의 스펙트럼 또한 매우 다채로웠다.

동화는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출발해 세상의 온기를 전하는 문학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응모작이 요즘 아이들의 변화를 놓친 채 어른의 시선으로 훈육하려 하거나 낡은 관념 속에 아이들을 가두어



아동문학가 배대인

위를 두었다.

최종 후보작 중 ‘엄병뎡뎡 낫도깨비들과 열령뎡뎡 아이들’은 도깨비의 캐릭터 설정은 탁월했으나 결말의 도식적인 해결 방식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신선해 선생님’은 AI 상용화 시대를 배경으로 시의성 있는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다만 인간과 기계라는 대척점 사이에서 작가의 의도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난 점이 아쉬웠다. 소재의 참신함이 돋보인 ‘이상한 잠 법정의 피고인’은 흡입

력이 강력했다. 하지만 결말에서 주인공의 반성이 성급하게 이루어져 내면적 고민의 깊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 숙고 끝에 ‘졸보 훈련기’를 당선작으로 낙점했다. 영악한 경제적 이익과 이기심이 동심을 잠식한 시대에, ‘어린이다움’을 간직한 인물을 만나는 것은 기쁨이었다. 특히 아주 미미한 생명의 떨림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지켜내려 애쓰는 주인공의 맑고 순수한 감각이 서서 곳곳에서 숨 쉬고 있음이 큰 강점이었다.

심사관에 오른 다른 수작들을 지면상 일일이 열거하지 못함을 양해바라며, 응모자 모두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당선자에게는 아이들의 가슴에 밝은 꿈과 희망을 심는 작가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